

— 7월호 Vol.9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을독

2021. 7. 30



청년들이여, 유라시아에서 아시럽의 시대로 나아가라



정진호 회장
(한동대학교 교수)

(1)

강화도를 찾아갔다가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선생을 만났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미주와 유라시아를 잇는 마라톤 대 장정을 펼치고 있는 분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하여 유럽을 관통하고 터어키 이란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넘어 그의 달리기는 계속되었다. 비록 압록강에서 멈추어 북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라톤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DMZ 를 달리는 동안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 팀과 합류하여 강화도 중앙 제일교회에서 그를 만났다. 강화중앙제일교회(옛 잠두교회)는 내 책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의 주인공 이동휘 장군이 강화도 진위대장 시절 회심하여 전국적인 교육자로 부흥사로 이름을 떨치게 된 교회였고, 죽산 조봉암 선생이 청소년 시절 후보를 접으며 열심히 다니던 교회이기도 했다. 강화도를 찾은 까닭은 바로 이 잠두교회를 찾아가 이동휘 선생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내 책 <여.혁.운>을 이미 읽으신 그 교회의 역사학자 장로님과 목사님이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이하며 이동휘 장군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를 알아보고 더듬거리며 그러나 반갑게 인사를 했다.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마라톤 중에 뇌졸증이 한번 와서 넘어지는 바람에 약간 말이 어눌해진 강명구 선생이었다.

저녁식사 시간, 그가 달려온 마라톤 대장정의 경로와 그 길에서 일어났던 각양 신기한 에피소드를 들었다. 내가 2010년 실크로드 횡단을 하며 80일간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던 그 때가 생각났다. 강명구 선생은 그 역순으로 그 길을 달려온 것이다. 오직 한반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며 서로 돕고 사는 그 나라를 염원하는 마음을 품고 그 길을 달렸던 것이다. 서로가 마음이 맞으니 반갑고 고맷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가 비록 괴짜처럼 여겨지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같은 꿈과 비전을 품고 한 평생 그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는 그가 귀인처럼 느껴졌다.



강화도에서 하룻밤을 한 공간에서 보내고, 다음날 사진 한장 같이 찍고 우리는 헤어졌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채. 그런데 며칠 후, 그가 원고를 메일로 보내왔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달리며 틈틈이 쓴 기행 에세이였다.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울독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싶다고 전화로 뜻을 밝혔다. 제목이 <아시럽에서 쓰는 명상록> 이었다. 아시럽?

원고를 훑어보니 방대한 양이었다. 책으로 만들려면 족히 3-4권이 되어야 하는 분량이었다. 몇몇 출판사에 보내보았으나, 너무 양이 많아 책으로 만들기가 부담이 된다고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요즘처럼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이익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출판사들이 능히 그럴 법했다.

원고를 읽어보려고 프린트를 하니 양면 복사라도 방대 묵직한 두께인지라 조금은 기가 질렸다.

"아시럽에서 들려주는 사랑과 모험, 평화 이야기"... 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첫장을 펼쳐서 문장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첫 꼭지 제목이 <두고 온 강, 대동강>이다. 대동강변에서 태어난 시인 아버지...

고향 평야를 그리며 그 한을 품고 이국 땅 미국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전자를 안고 살아온 그가 결국 평야를 향한 대 장정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결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유라시아라는 단어 대신 아시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유라시아(Eurasia)라는 말은 유럽인들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몰려들던 그 시기에, 유럽에 딸린 아시아로 일컫는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 용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역사의 무게 중심 축이 동아시아로 옮겨와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 달려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바야흐로 아시럽(Asirop)의 시대가 부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시럽에서 쓴 명상록을 읽어가며 감동과 함께 놀라움이 다가온다. 그가 아버지로 부터 얻은 선천적 시적 감수성과 세계를 누비며 얻은 해박함에 깊은 인문학적 통찰력까지 가미되어 수려한 문장으로 수놓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책이 두꺼워 3-4권으로 나뉘어 출간할지라도, 혹은 그로 인해 출판에서 손해가 날지라도, 그가 밟았던 수많은 나라에 남겨놓은 평화의 가치와 맛먹을 수는 없다. 그가 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그의 평화 마라톤이 지닌 깊은 고뇌와도 같은 기도가 바로 내가 달려온 지난 30년 인생과 맞닿아 있기에 나는 운명처럼 이 책을 받아들였다.

아시럽, 그 놀라운 명상의 세계로 이제 그와 함께 한동안 달려갈 것이다.

평화와 상생, 연합과 하나됨의 그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그날을 향해...

(2)

SBS 남북교류 본부장 김종일 PD라는 분을 만났다. 그 분을 통해 SBS에서 주관하는 남북청년 평화경제 스타트업 공모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의 2030 청년 학생들이 너무나도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심지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것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했다. 그리고 거기서 입상한 몇 팀을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평양과기대에서 북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더하여 이 취재에 응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였다. 처음엔 약간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지만, 한국의 청년들에게 통일의 꿈을 불어넣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지라 결국 승락하고 말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남과 북을 연결하여 평화경제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포럼에 속한 한동대 청년 학생들이 모여 SBS 공모전에 출전하여 무난하게 예선을 통과하였다. “우리

울독 같이 갈래?” 라는 제목으로 추천을 많이 받아 예선 성적 2위로 출전했다. SBS와 무관하게 2024년도 개최될 강원도 청소년 올림픽을 기해 남북한 청소년을 포함한 세계청소년들의 문화 캠프를 울독, 즉 울릉도와 독도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울독청소년 문화캠프>의 내용을 준비하던 중에 그것을 응용하여 공모전에 출품을 한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좋게 받아들인 SBS에서 8월 중순 우리팀 청년들을 데리고 울독을 찾아가서 우리가 추진하는 캠프의 계획을 취재하기로 하였다. 그곳에서 <울독TV>도 함께 촬영할 계획이다.

1차로 내년도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울독에 모아 캠프를 열 예정이다. 그것을 위해 올해 하반기 부터 선발과정을 거쳐서 예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준비한 후, (코로나만 잠잠해 진다면) 내년 여름에는 실제로 한국에 청소년들을 모아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DMZ를 가로질러 포항에서 울독으로 넘어가서 캠프를 실시하고자 한다. 남과 북(탈북 청소년) 그리고 조선족과 고려인, 재일조선인과 미주와 유럽의 청소년까지 다 모아서 기성세대가 이루지 못한 화해와 평화의 축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을 이어 어깨 동무를 하고 마음껏 학술토론과 체육대회와 상생경제를 만들어갈 그들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4차산업 혁명의 주역이 되어 메타버스 세계를 오가면서 기성세대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발한 창업 스타트업을 만들어가는 그 시대를 상상해 본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이들이 울독에 모여서 한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된다.

- 1) 남과 북, 디아스포라 청소년에게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기회
- 2) 분단 조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이전 세대들의 아픔과 트라우마 이해의 기회
- 3)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평화와 상생, 연합과 통일의 꿈 키우기
- 4) 연합과정에서 나타난 조사자료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통합 통일의 연구자료로 사용
- 5) 캠프 이후, 이어지는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일꾼 뿐 아니라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 6) 각자가 속한 나라 그 자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7) 후배들을 발굴하여 통일의 꿈을 이어가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디아스포라 청소년 울독 캠프가 2023년 세계 청소년 울독캠프로 발전하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2024년 세계 청소년 강원도 올림픽이 남북한이 공동주최하는 민족 화합의 평화 축제, 통일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되면 좋겠다. 상상은 자유롭다. 그러나 선한 상상력이 모아지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무르익으면 마침내 통일의 꿈은 실상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평화와 통일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값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의 터위에 우리가 독립을 찾은 것처럼 통일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마음껏 유라시아로, 아니 아시럽으로 달려가는 그 날을 상상해 본다.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



연구식 위원
(아무르 콜라겐(주) 대표)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대마도에서 대화퇴까지 이어지는 동해 황금어장이 대폭 축소되었다. 1994년 발효된 UN해양법 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해양질서에 기인한 자국 이익을 위한 조치라 하여도 양국간의 최소한의 규칙만 지켜주면 거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영위하였던 어업인들로서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좁아진 조업지에서 국내 중소 대형어선간 자리다툼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어구를 훼손하거나 탈취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대형어선들은 복잡한 국내 어장을 대체할 어장이 없을까를 고민하였다.

그해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살오징어를 잡기 위해 러시아 민간 어업쿼터를 매입하고 44척의 대형 오징어 어선이 진출하였으나 높은 민간 쿼터료와 어장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항 부진까지 겹쳐 조기 철수를 하게 되고 큰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이후 명태, 콩치, 대구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한·러 어업협상 어종에 오징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1년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5천톤의 살오징어 쿼터를 공식 배정받고 동해안의 72척이 연해주 수역에 입어하게 되었다. 민간보다 저렴한 입어료와 90일간의 조업기간 확보로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러시아 연해주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생소한 장비의 조작방법, 부호화한 어획보고서 실시간 문서제출, 환경 훼손방지 등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업조건은 첫 외국 어장 진출의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선장님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조업감독을 위해 동승한 러시아 감독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여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감독관이 한국 선장의 횡포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보고하는 순간 해당 어선의 출역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이고 현장에서 체포하여 자국에서 재판을 받아 구금될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이었다.

또한 한국으로 귀향할 때에는 지정된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연료비 절감과 귀항시간 단축을 위해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로 체크포인트를 무시하고 가로질러 항해하거나, 러시아와 북한간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서 어군이 형성되는 해에는 과다한 어획 욕구로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음 해 어업조건 협상에서 무척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협회장 자격으로 총괄하는 나로서는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었다. 입어로 부담으로 입어 허가장을 발급받지 않은 무허가로 몰래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어서 일본으로 도주하다가 수습 발의 기관총을 맞고서 나포된 경우도 있었다. 나포된 선장 아들이 나를 찾아와서 울면서 아버지와 선원들을 구해 달라고 했다. 무허가로 조업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불가한 상황이었어서 혼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선박이 억류되어 있는 나훗카 해군기지까지 승용차로 5시간을 달려갔다. 나포되지 보름이 된 상태로 선박내 먹을 것이 없어서 초췌한 선원들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국경수비대측에 식료품 공급을 부탁하니 일반 식료품은 반입이 안된다고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라고 하였다. 소개한 업체에 가보니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근무자는 둘이었다. 필요한 식료품 리스트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정산부터 하라며 견적서를 내밀었다.

한국 물가로 보면 최소 다섯 배는 족히 넘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획물 압수는 물론 11명의 선원을 선박내에 구금하고 어선 몰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러시아 국경수비대 조사관을 만나보니 약식기소는 어렵도 없어 보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선장을 제외한 선원과 선박을 귀환시켰다.

어업 실무협상은 모스크바, 어업감독청인 국경수비대 소재지 블라디보스톡, 위성 모니터링센터가 있는 캄차카 등을 십 수차례 방문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15일 만의 귀국길 내내 깊어졌다. 왜 가까운 북한어장을 두고 러시아에 구걸해야 하는가?

당시 일본과 중국과의 어업협상은 상호 입어로서 양측의 EEZ 협상을 통해 입어 조건을 결정하는데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입어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은 한·러 어업 협상이지만 협상이 아니라 부탁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들 내부에서 결정된 조건을 사정사정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받는 것이 목표였고 이익이었다.

2006년 10월, 갑작스럽게 구룡포수협 조합장에 취임하게 되어 선주협회장으로서 실무책임의 역할은 덜었지만 축적된 조업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면서도 러시아 대체어장으로서의 북한어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UN 제재와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 대립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갑자기 호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바다에서의 남북경제협력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04년부터 북한어장에 중국 쌍끌이 어선 2천여 척이 출몰하면서 그야말로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절을 따라 회유 남하하는 오징어를 중간에서 차단해버려 강원, 경북, 경남, 부산의 어업인들은 출어 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고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라 할 만큼 지금도 진행형이다.

물론 기후변화와 남획 문제도 없진 않지만 가장 비중 있는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2014년 2월, 생각을 정리해서 수산전문지와 지방 일간지에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란 칼럼을 게재했다.

우리는 뛰어난 선박과 선장 등 장비와 기술자를 제공하여 북한의 지정항에 입항하면 북한 어민을 태우고 조업을 하고 조업이 종료되면 지정항에 내려주고 오자는 내용이었다. 입어료는 선불로 북한에 지불하고, 북한 해역의 보안상 문제는 러시아 입어 조건과 같이 어선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위성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되며, 입출역 체크포인트를 지정해서 그곳으로만 통항하고 어획량 등 검문검색을 하면 육지의 개성공단처럼 바다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믿었다.

남북한의 수산과학자가 공동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회유성 어종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착성 어종까지 확대해나갈 수도 있고, 공동어로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 어민에게 급여를 지불하여 경제적 도움이 될뿐더러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선원의 문제점이던 안전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북한어장에서 중국어선들의 무차별 자원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생물종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었다.

이후 '바다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회의가 해양수산부에서 몇 차례 열렸고 나는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8년여의 조합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

3년 후 만난 퇴직 공직자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2014년에 해수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바다의 개성공단'은 통일부에 전달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묵살되었다고.

그날 그분과 함께 포항 영일대에서 술로 밤을 지새웠다. 이것으로 동해안 어민들을 위한 나의 노력은 세월 속에 묻히는가 했다.

2020년, 우연인지 필연인지 경상북도에서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동해안을 따라 철길과 물길, 하늘길을 열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비전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사)유라시아 원이스트씨포럼(Eurasia One East Sea forum)'을 창립한지 1주년이 되었고 4개 분과 중 해양농수축산분과에 참여하게 되면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릴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업인으로 남과 북이 공존하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 아무르 콜라겐(주)은 *바다의 가치를 담다*의 기치 아래 천적이 없는 호미곶 불가사리에서 저분자 콜라겐을 추출(특허 10-1640799호) 해서 마스크팩, 에센스, 영양크림, 핸드크림, 샴푸, 비누 등 보습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한반도 해양생태계 보전과 한동해 교류협력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목표 14를 중심으로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
극지연구실 연구위원

바다 그리고 우리

우리의 생활은 주로 육상에 매여 있다. 땅을 밟고 호흡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기에 바닷가에 살지 않는 한 바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어서 이미 수년전에 스쿠버다이빙을 시도했지만 이내 포기해야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코로 숨 쉬던 본능을 포기하고 코를 막고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 이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됐다. 게다가 귀가 민감해서 비행기만 타도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데 물속에 들어갔더니 귀의 압력을 이퀄라이징(equalizing: 압력평형) 하기 너무 어려웠다. 고통 속에서 배우기를 중단하면서도 육지에서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과 물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렇듯 바다는 어떤 장비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다. 태양계 행성 중 물과 바다가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구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지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오늘은 이 바다와 관련된 생태계와 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한동해(One-East-Sea)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한반도 주변해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고기가 서식하는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수산물을 언제까지 쉽게 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수산물 섭취량이 높은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 톤 씩 연근해에서 수산물을 어획하고 있다. 이 규모는 거의 한계치에 달해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00만 톤 이상은 양식업을 통해 생산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수입하는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도 2016년 100만 톤가량으로 수산물 어획량을 회복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70만 톤대로 감소했다. 한국에 비해서 어선과 어구가 낡고 열악할 뿐 아니라 대북제재로 인해 선박 급유도 쉽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 어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신 북한 어장에는 중국 어선들이 진출하고 있다. 중국이 정한 금어기에 어획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과 계약을 맺고 조업권을 구매하여 매년 7~11월 오징어 성수기가 되면 북한 관할 동해 수역에 입어한다. 문제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는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징어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동해를 회유하는 어종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을 회유하는 도중에 중국 어선이 오징어를 남획하면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보도와 학술논문 등에서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그런가하면 선단으로 몰려와서 쌍끌이 저인망 어업을 하는 대규모 중국 어선에 비해 열세한 북한 어선은 점점 먼 바다로 내몰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북한이 극도로 경계를 강화하면서 어업활동 자체가 감소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많은 북한 어선들이 매년 러시아와 일본으로 떠내려갔다. 이러한 현상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극한 상황에 노출되는 북한 어민의 인권 문제까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4, 대양·바다·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한다. 2015년에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가지를 발표했다. 그 중 14번이 바로 바다에 관한 것이다. SDG14는 대양·바다·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7가지 세부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되는 3가지 세부목표까지 총 10가지 세부목표가 있다. 해양생태계에 관한 SDG14는 국가별·기간별 공식 통계의 차이가 큰 편이다. 또한 다른 SDGs에 비해서 진전이 미약한 목표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다른 목표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관심이 육상의 현안에 쏠려 있어서 아직까지 해양생태계에 대한 자료와 접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SDG14 해양생태계 이슈에서 중요한 이행지표는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해양보호구역, 해양건강성을 보여주는 수질, 남획되거나 이미 붕괴된 어장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비율, 저인망 어업 등이다. 북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해양보호구역과 수질에서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언급했듯이 북한 어선이 열세하기 때문에 어장의 남획이나 붕괴는 큰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한 중국 어선의 어업 방식으로 인해 저인망 어업에 의한 어획은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고된다.

더 큰 문제는 SDG14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대지속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s: MSY)에 따른 자원관리형 접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수준, 공해와 접경해역에서의 어업 영향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제도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 개별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접경수역에서의 남획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방법 등에 대한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해양생태계 이슈와 동향

북한 역시 대동강,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등 주역 하천에 유입되는 산업용수와 미처리 오수로 수질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애초에 선박 사고 등이 아니고서는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오염물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는데 육상 활동에 기인하는 오염원이 강·하천을 통해 바다에 유입되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국토환경 보호 관점에서 연안의 수질오염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또 남북한이 공유하는 서해 갯벌은 세계 주요 철새 이동경로 중 하나이다. 동아시아-호주 철새이동경로에 포함되는 서해 갯벌에서 도요류 2백만 마리 등이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먹는다. 따라서 북한도 철새보호구와 바다새보호구를 지정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는 유엔안보리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엔대북제재패널 보고서에는 북한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들이 사진 증빙을 통해 적발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외화 획득원이 되는 광물, 수산물 등의 수출 금지 때문에 불법 조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수산자원 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수산자원 보호·증식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적극적인 어로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정체되자 수산자원의 보호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나름대로 명태, 연어 등 고유 수산자원을 방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아직까지 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방식의 양식업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최근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대서양 연어에 대한 양식을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6월 북한이 유엔 관련 기구를 통해 공식 발표한 “자발적 국가 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SDGs 관련 북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드러낼 뿐 아니라 북한이 SDGs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북한이 정한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를 보면 인민정부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3개 목표, 즉 전 분야와 과학화·교육화, 자립적·지식기반 경제 건설,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SDG14를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의 국가발전목표에 “바다”공간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SDG14 달성을 위한 한동해 교류협력 필요성

한동해(One-East-Sea)는 환동해의 경제·사회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용어로 보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SDG14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환동해 해양생태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 해양생태계 이슈와 동향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바다의 수질, 갯벌, 수산자원 등은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곳에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해양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그런 점에서 한동해 교류협력은 물류·관광 같은 경제·사회적 이슈 뿐 아니라 환경·보건과 같은 분야로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남북한 간에 단독으로 풀기 어렵거나 중국 어선의 입어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접근해 볼만하다.

애석하게도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나 남북협력에서 해양생태계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5년간 유엔기구의 대북접근 원칙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2017-2021 유엔전략계획(Strategic Framework)”에도 SDG14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SDGs를 주도하는 유엔 스스로 본의 아니게 소외시킨 SDG14를 이번 VNR에서 북한 스스로 반영시킨 것이 놀랍다. 이제 향후 발표될 “2022-2027 유엔전략계획”은 북한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SDG14 관련 대북 개발협력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그동안에는 남북환경협력도 육상 중심, 접경 중심이었다. 북한으로 통하는 육상 교류만 바라보면서 접경해역은 안보 이슈에 압도되었다. 아니, 남북협력에서 한반도 주변해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은 것 인지도 모른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두는 한반도 해양생태계 보전과 한동해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바라보고 SDGs 전반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편협하게 접근했던 남북교류의 저변이 이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 한동해를 공유하는 남북한과 일본과 러시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한 SDGs이므로 중국, 미국 등의 참여와 협력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의 소식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십니까?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가 기세가 꺾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1) 경상북도측의 제안과 요청으로 북한의 경제를 알리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9월 중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우호도시 연합으로 남북경협을 말하다(가제)"의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경상북도 측에서는 남북경협에서 합의하여 탄생한 저희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유원포)>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기에, 경상북도 주최, 유원포 주관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같은 목적으로 진행 중인 <울독 TV>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생방송 패널은 울독tv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 행사의 성공 실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울독 tv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꾸준히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럼 위원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울독tv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해의 중심 울독, 즉 울릉도와 독도가 중심이 되어 남북경협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 시대를 기대하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남북 통신선이 연결 복원되어 다시 남북교류의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듯 하여 주시하고 있습니다.)

3) 특별히 저희 포럼의 청년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 SBS에서 주최하는 남북 청소년 평화경제 스타트업 상상 공모전에 출전하고 있는지라... 다음주 중에 한번 울독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울독 같이 갈래?"라는 참신한 제목으로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독 청소년 문화캠프를 준비하여 장차 저희 포럼에서 추진 중인 <울독 통곰학교>까지 이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청년세대들이 북한과 통일, 그리고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4) 회원가입 안내

① 소개글



② 입회 신청서



③ 정관



* 재정상황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OneEastSea.Forum@gmail.com 연락처: 정진호 교수 (054-260-3110)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산학협력관 308호

후원계좌: 국민은행(KB) 821701-01-616477 (사단법인 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